

한변과 성통만사,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 관련 특별행사 개최

-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특별행사 개최

일시 : 2018. 10. 24. 18:30(현지시각)

장소 : 뉴욕 유엔 본부

한변과 국내 북한인권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유엔의 협의자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갖고 있는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는 오는 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관련 특별행사(side event)를 개최한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김정은 집권 후 오히려 악화되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13회에 걸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특히 2014년도부터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라 매년 4회에 걸쳐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여 유엔 안보리는 계속 이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고, 부풀려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반인도범죄로 지목된 북한 김정은은 정상국가의 유능한 지도자로 미화되고 있다.

이에 한변과 성통만사는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에게 북핵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인권 부재에 있고,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의 지적대로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여 다가오는 12월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미국의 저명한 북한인권단체인 Defense Forum(수잔 솔티), HRNK, 영국의 CSW 등과, 한국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세이브 NK, 자유민주연구원, 블루투데이 등이 참여한다.

2018. 10. 20.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회장 김태훈